

소아감기환자에서 항생제의 처방 및 효과에 대한 의사와 보호자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가?

조흥준, 홍수종*, 박실비아**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, *소아과학교실, **한국보건산업진흥원

연구배경: 의사방문의 가장 흔한 이유인 소아감기환자에서 항생제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. 항생제의 불필요한 이용은 항생제 내성을 증가시켜 심각한 공중보건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. 이 연구는 소아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개원의와 보호자간 소아감기에 대한 항생제의 효과에 대한 지식과 신념의 차이를 조사하였다.

방법: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파일에서 가정의학과와 소아과개원을 각각 600명씩 단순 무작위 추출하여 세 번에 걸친 설문지 발송과 2회에 걸친 전화 리마인더를 제공하여 총 409명의 응답(가정의 204명, 소아과의 205명)을 얻었다. 보호자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부에서 1,099명을 무작위 선택하여 이중 508명을 전화면접조사 하였다. 개원의와 보호자, 가정의학과개원의와 소아과개원의 간 차이는 t-test와 chi-square test로 비교하였다.

결과: 개원의와 보호자의 80% 정도가 항생제 내성이 문제라고 응답하였으며, 개원의의 90%, 보호자의 78%가 의원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내성에 공헌한다고 응답하였다. 개원의의 90%, 보호자의 79%는 감기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나, 개원의의 59%와 환자의 48%는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, 개원의의 47%, 환자의 60%는 항생제 사용으로 감기의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. 개원의의 73%와 보호자의 34%는 항생제가 감기의 합병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. 개원의의 93%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보호자의 기대를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나, 보호자의 2%만이 항생제 처방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. 의사의 40%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았을 때 보호자가 의사를 바꿀 것을 걱정하고 있으나, 이런 이유로 의사를 바꾼 경험이 있는 보호자는 3%에 불과하였다. 개원의의 82%는 약 처방이 감기에 대한 설명보다 더 쉽다고 응답하였고, 보호자의 절반 정도는 의사가 설명보다는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. 보호자의 43%는 의사 방문 시 감기에 대한 설명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15%가 약 처방을, 그리고 6%만이 항생제가 포함된 약처방을 기대한다고 응답하였다. 보호자의 37%만 처방내용에 대해 물어본다고 응답하였다.

결론: 감기에 대한 항생제의 효과 및 처방이유에 대해 의사와 보호자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으며, 의사는 약이나 항생제에 처방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.

중심단어: 항생제, 감기, 처방, 개원의, 보호자